

## MLB-노조, CBA 최종 결렬... '직장폐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직장 폐쇄가 확정됐다. 31년 만이다.

2일 'OSEN'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는 이날까지 기존 CBA(노사협약)를 갱신하지 못했다. 기존 노사협약이 만료되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 선수 계약, 트레이드는 이 기간 할 수 없다. 선수들 역시 구단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 사진=shutterstock

1995년이다. 당시에는 선수들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리그가 중단됐다. 1994년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않았고 1995년 정규시즌 개막이 늦어지며 시즌이 축소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체가 다르다. 구단들이 직장 폐쇄를 먼저 결정했다. 역대 4번째 직장 폐쇄이자 31년 만이다. 앞서 1973년, 1976년, 1990년에 직

장폐쇄가 단행된 바 있다.

5년 기한의 기존 CBA에서 문제가 됐던 수익 공유, 연봉 조정 신청, 사치세 한도, 프리에이전트 연한, 지명타자 제도, 드래프트 제도 개선, 최저 연봉 인상 등 다양한 안건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협상에서도 별 다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구단주들은 직장폐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메이저리그의 모든 업무가 멈춘 것은 지난 1994-

시즌 정상 개최를 위한 합의 마감시한을 따로 두거나 다음 협상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위해 조속히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협상을 이어갈 의지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합의를 못해서 실망스럽지만, 절망스럽지는 않다. 이것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다음 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임스, 이번엔 코로나19로 전력 이탈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가 코로나19 이슈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디 애슬레틱은 지난 31일 "제임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 관리 및 안전지침에 따라 새크라멘토 킹스와 원정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 들어갔으며, 새크라멘토 경기뿐만 아니라 이후 경기에도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르브론 제임스, 사진=nytimes.com

기 중 반 이상을 빼 먹었다. 제임스는 이날 현재 올 시즌 레이커스의 22경기 중 11경기에만 나와 경기당 평균 25.8점, 6.8 어시스트, 5.2 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레이커스는 제임스가 뛰는 11경기에서 7승4패였지만, 그가 없었던 11경기에선 4승7패였다.

레이커스는 제임스의 공백이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임스의 잇따른 결장으로 인해 전력을 제대로 꾸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임스는 이번 시즌 발목과 복부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다. 지난달 22에는 경기중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해 퇴장을 받았고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도 받았다. 이래저래 팀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팀 경

프랭크 보겔 레이커스 감독은 "제임스가 빠져 팀으로선 큰 손실"이라며 "실망스럽지만 현재는 제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 타이거 우즈 "다리 절단할 뻔...투어 복귀 목표"



▲ 타이거 우즈, 사진=shutterstock

타이거 우즈(46·미국)가 대회 출전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전날 미국 골프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활 상태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차량 전복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플로리다에서 재활에 힘써왔고 최근 3초 길이의 풀 스윙 영상을 공개하며 '좋아지고 있다(Making progress)'라고 밝혀 골프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우즈는 이날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투어에서 플레이하는게 목표이지만 투어를 풀타임으로 뛰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허리를 다친 뒤에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번 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없다"며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다. 우즈는 벤 호건을 언급하며 "불행하지만, 이것이 내 현실이다"라며 몇몇 대회에 선택적으로 출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벤 호건은 1949년 교통사고를 겪고도 불굴의 의지로 이듬해 US오픈에서 우승했다.

사고 직후 다리를 절단할 뻔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오른쪽 다리가 산산조각 났다. (절단 가능성이) 50대 50이었다"며 "다리 하나로 병원에서 나올 뻔 했다"고 말했다. 우즈는 아버지에게 배운 강인한 정신력이 사고의 기억과 힘든 재활을 이겨내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우즈는 또 "아직 갈길이 멀다"며 실제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 중간도 못 왔다. 다리 근육과 신경을 더 발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싸인 플러스 ★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 트로피

세리토스점

#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 TROPHY & ENGRAVING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